

“여수박람회장 민간 매각 중단하라”

32개 시민단체 “호텔 건설 반대” 성명
여수 정선 살려 공공 위해 활용해야
해수부장관·도지사 등에 입장문 전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 매각과 호텔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동서포럼 등 여수지역 32개 시민단체는 “최근 재단이 발표한 여수박람회장의 호텔 건설을 위한 민간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장의 민간매각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과 지구 위기의 해법을 바다에서 찾겠다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여수 정신’에 반한다”며 “공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민간매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제 논리는 매우 근시안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람회장을 공공시설이나 가치 높은 용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수시와 권오봉 시장을 향해 여수박람회의 개최 정신과 유산에 반하는 호텔 건축용 민간 매각 반대 동참할 것과 여수와 전남·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주민들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공 활용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여수세계박람회는 수도권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외된 남해안권을 되살리기 위한 국가 전략적 메가 이벤트로서 향후 남중권발전의 허브역할을 해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대선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 시설·기구 및 행사 유치 약속도 상기시켰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특히 지난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돼 두 차례 도전 끝에 이룬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는 20여 년의 역사와 가치를 품고 있고 그 안에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권 지역민들의 꿈과 맘, 피와 눈물, 애환과 희망이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람회장 민간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해수부장관과 전남도지사, 여수시장, 여수박람회재단이사장에게 보냈다. 지난 2012년 전 세계인들이 한데 모인 축제의 장이었던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8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공 박람회로 기록됐지만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는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선(先)투자금 회수를 위해 박람회장 매각만을 고집해 온 정부와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측이 매각·임대 등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임영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수 시민과 시민단체가 하나 돼 박람회 전 준비과정과 성공개최까지 쏟은 노력은 물론 지금까지 공공시설 도입 촉구 등 사회활용을 위한 국회·청와대의 1인 시위까지 한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처지다”며 “최근 여수시장 면담 결과 정부 선투자금 상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30년을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민간 투자자 매각에 찬성하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며 받은 정부 투자금 37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박람회장 부지의 민간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매각 대상 부지는 리조트·숙박시설이 들어설 A구역과 워터파크 시설 B·C구역, 복합상업시설 F·G구역 등 5개 구역으로 면적은 7만9930㎡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선언실천위원회와 동서포럼 등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3일 오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박람회장의 민간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선 KTX 고속화·경전선 개량, 정부사업 반영을”

여수상의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 전달
여수상공회의소와 광주·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전라선(익산-여수) KTX 고속화 사업과 경전선(광주송정-여수엑스포역) 사업을 정부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여수상의와 광주·순천·광양 상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 송정·순천·여수 간 KTX 운행노선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한 건의서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획부·국토부·국회·광주광역시·전남도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들 상의는 건의서에서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광역 여수광양만권은 매년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여수국가산단 등에서 약 10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남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특히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복선화 사업으로 개통된 전라선은 시속 120km/h의 저속 철도로 현재 서울 기준 KTX 3시간이 소요돼 철도 이용 관광객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시간 이내 도착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들 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마련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을 중심으로 2시간이 내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기원하고 있지만 나 현재 철도 상황은 광역 여수·광양만권과 영덕·울진권역이 유일하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정부 국가철도망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 ~ 2030)에 전라선(익산 - 여수엑스포) KTX 속도 개선대책인 직선화사업(속도 120 km/h→250km/h) 반영과 예비타당성제조사에 착수한 경전선 개량사업(광주 송정 - 순천)과 연계해 여수엑스포역까지 확대 운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상의는 이어 이 방안이 내륙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철도로 조성한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하고 1조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경제해양관광단지 조성 후 1일 평균 약 6000명의 관광객과 5600여 대의 승용차 증가에 대비한 최적의 방안이며 향후 지역간 교통은 KTX가 중심축을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정부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월 예비타당성제조사에 착수한 경전선 개량사업에 광주·순천·여수 간 교통 연계 사업이 확대 반영 된다면 서울-여수 간 KTX 2시간 이내 도착으로 비로써 철도 이용객들의 심리적 생활권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한 충청·호남권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침체된 전남과 국내 경제 활성화로 실질적인 국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재활용품 수거하고 현금 보상 받으세요”...여수시 자동수거기 설치

여수시가 캔과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자동수거기(사진)를 설치해 운영한다. 자동수거기 설치장소는 여수시청과 거북선공원, 여문공원, 이순신광장, 해양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6곳이며 15일부터 운영한다. 자동수거기는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해 압착해 쓰레기 수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캔은 1개당 15포인트, 페트병은 10포인트가 쌓이며, 2000점 이상이면 현금 200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1억6000만원을 들여 자동수거기 8대를 설치했다. 유지 관리는 여수시가 하고, 포인트 적립 등 현금 지급은 슈퍼빈이 맡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자동수거기에 버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슈퍼빈 홈페이지(www.superbin.co.kr/)에서 포인트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15일 오전 10시부터 자동수거기 오픈 행사를 열어 시민 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장비구비를 증정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와 규모가 비슷한 구미시와 의왕시도 자동수거기를 운영하는데 쓰레기 수거 효과가 커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한 장도근린공원 개방

여수시는 울천동에 위치한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해 장도근린공원으로 외부에 개방됐다. (사진) 장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GS칼텍스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2017년 10월 착공했다. 사업비는 285억원이며 이중 건축비 210억원은 GS칼텍스가, 토지매입비 75억원은 여수시가 부담했다. 이번 사업으로 장도 9만3000㎡ 부지에는 창작 스튜디오, 장도 전시관, 다도해 정원 등 문화예술공간이 새롭게 들어섰다. 창작 스튜디오는 예술인의 작업·휴게 공간이다. 조각동, 회화동, 문예동 등 총 4개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작업실과 다목적실, 정원, 외부 작업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장도 전시관은 교육,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다. 전시관 내부는 전시실, 카페, 교육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는 야외 공연장과 잔디광장이 마련돼 있다. 다도해 정원은 남해 자생 나무와 야생화초 등이 심어진 구역이다. 정원에는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힐링을 선사한다. 장도와 울천천수공원을 잇는 보행 교량은 석



축교의 역사성, 물때에 따라 다리가 드러나는 신비성 등을 고려해 원형을 최대한 유지했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석축교의 높이와 폭을 확대·보강했다. 여수시는 장도근린공원이 예술마루와 함께 호남권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 관제지는 “전국의 많은 예술 작가들이 장도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지역민과 예술인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